

학교 보건의 활성화 방안

이 명 성

충청남도
예산교육청 장학사

I. 학교 보건의 중요성과 필요성

학교 보건의는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인구 집단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예방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인구는 그 지역사회 인구의 1/4정도를 차지하는 다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더구나 학생과 교직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방치하고 바쁜 일상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보건은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생들은 정신과 신체의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의 보건위생 습관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올바른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건강 생활의 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배가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러한 역할을 책임 있게 담당할 인적 자원은 당연 양호교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본 군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학교보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양호교사의 순회근무

현재 양호교사의 순회근무는 초등학교에서 미 배치 교에 주 1회 실시되고 있다. 이에

학교 보건의 활성화 방안

다른 문제점은 순회근무교에 대한 소속감 결여와 함께 연계성 부족으로 학교보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근무 내용을 살펴보면 3-6시간의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양호업무에 관한 조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환경조성 및 지속적인 아동관리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 1회 본교의 양호업무를 또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고 가야 하는 어려움과 순회근무를 위한 자료를 중복해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원거리 출퇴근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학교보건업무의 완전한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건교육시간의 확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건교육시간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육시간은 학교장 재량시간이나 체육교과서 중 보건 편에 대하여 양호교사의 보건교육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보건교육시간 확보는 교과목간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방안은 보건교과의 신설로 정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는 검증단계를 거쳐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단계이므로 서울시 교육청처럼 시·도 교육청에서 주당 몇 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차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양호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의 기회확대와 다양한 교수자료의 제작 및 구입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

학력 중심의 교육제도는 학교의 다른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 건강관리는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생각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물론 아동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임교사나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학교보건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업무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 보건 업무는 때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져야 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4. 양호교사의 전문성 함양

각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양호교사들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료인과 교사라는 두 가지 직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호교사들은 교직원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습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 가. 해당연수 참여 - 양호교사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나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과 연구회 활성화 - 자율적인 모임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교과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각종 학습자료 개발과 자료제작 등의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양호교사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보건 소식지 등을 배부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각종 발표대회 개최 - 공개 수업, 비만아 관리 사례, 학교보건 시범운영 사례 등을 발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양호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업무의 표준지침 마련

학교보건업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급식, 화

학교 보건의 활성화 방안

장실 청소, 교사가 감기 걸리는 것까지 무엇하나 학교보건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학교보건법에서 양호교사의 직무에 관해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소극적이고 한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 동안 각 시·군에서 배부한 학교보건 관리지침을 조금만 더 분석하고 첨가한다면 업무의 표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양호교사 전문직 양성

양호교사의 업무중 대외 기관에 협조하거나 의뢰하는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양호교사가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업무 추진보다는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것일 때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양호교사 담당 장학사가 시·군 교육청 아니 시·도 교육청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군 중심으로 살펴 본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다소 지엽적이고 이상에 가깝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학교 보건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부응하는 비중으로 교육계에 존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존재가치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의식 전환을 유도해야 하고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학교보건의 위상을 공고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만 떠들석 하다 이내 흔적만 남기고 잊혀져 버리는 식의 학교보건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병들게 할 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씨앗이 틈실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언젠가는 싹을 틔우듯 학교보건도 머지않아 튼튼한 뿌리를 내릴 것으로 믿고 우리 함께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